

# '600년 전통' 특 쏘는 숙성홍어 참맛 보러 오세요

### 24~26일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일원서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홍어 50% 할인...시식·공연·요리·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나른한 봄날 입안 가득 퍼지는 알싸한 숙성홍어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대항연이 홍어의 본고장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제20회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를 24~26일 사흘간 나주시 영강동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영산포 홍어 축제에선 600년 전통을 간직한 영산포 숙성홍어만이 가진 '삭힘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홍어 맛보고go(고)-음악 취하go-양귀비 물들go'다.

사흘간 홍어로 만든 요리 시식을 비롯해 특별한 체험과 콘서트,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객 맛이를 위해 강변에 심은 꽃양귀비도 만개해 강렬하고 화려한 다채색 빛깔을 뽐내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기간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만 50% 할인된 가격에 숙성홍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혜택을 제공하며, 인근 홍어의 거리 상가에서도 30% 할인된 가격에 숙성 홍어를 판매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달걀 1000개를 방문객 1인당 10개씩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도 갖는다.

연령층별로 홍어 애호가를 선별하는 '홍어시식 콘서트'를 비롯해 홍어를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홍어 깜짝 경매',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탐살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축제 최대의 즐길거리인 맛갈 난 먹거리가 가득한 음식 부스도 운영한다.

막혔던 코가 뚫리는 잇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할 홍어삼합에 막걸리를 곁들 홍타부터 홍어회, 홍어 찜, 홍어애국 등 다양한 홍어 음식을 판매한다.

풍성한 식전 공연이 펼쳐지는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에 막이 오른다.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엔 어린이를 위한 '풍선요기쇼'가 펼쳐진다.

25일엔 인가 가수 우연이·배일호·천기연·박진우·동후가 무대에 오르고 오후 3시엔 '코믹매직쇼'가 웃음을 선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3시엔 '파워볼쇼'를 시작으로 김희재·무룡·최윤하·나혜진·김산하·김



나주 영산포에서 열린 '18회 홍어축제' 행사장에서 화려한 불꽃이 나주의 밤을 수놓고 있다.

(나주시 제공)

버리 등 트리트 가수가 총출동한다. 운병태 나주시장과 장병준 축제추진위원장은 "수많은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에도 '홍어가 없는 잔

치는 잔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숙성 홍어는 전라도의 대표 음식"이라며 "맛의 깊이는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보양식인 영산포 숙성 홍어 요리를 다

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 한우, 남서울 판로 개척 발판 깔았다

### 강진완도축협-남서울농협 도농상생 자매결연 협약식

강진군이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판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에 나섰다.

강진완도축협은 정보교류와 축산물 출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강진완도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남서울농협과 도농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영래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난해 특허청을 통해 상표 출원한 강진 한우 신규 브랜드 '남도귀리 한우' 특화 육성을 위한 입점 판매 및 강진 한우를 비롯한 흑염소 등 지속 가능한 농축산물 판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거래대형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개선과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강진군은 지난해에도 강진 한우 대도시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NH농협 하나로 마트 동탄유통센터를 방문해 강진 한우 물산전을 추진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에 힘을 쏟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개량을 통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한우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조합의 발전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서울 소비자들에게 더욱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는 진출로가 놓여지길 희망한다"며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 장성군, 전남지역 최초 '아동치과 주치의' 운영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선정

장성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전남지역 최초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아이들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 의원에서 6개월마다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480여 명으로 오는 7월부터 약 3년간 추진한다.

치아 발육 상태, 충치 위험도 평가 등 구강 건강 상태 검진과 불소 도포 등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진찰료의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사선 촬영,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 선진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장성교육지원청,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아이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관계자가 지난 21일 개최한 연사회에서 벼 모판 관주 처리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군 벼 모판 병충해 방제 신기술 시연회

함평군이 벼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21일 현장 연사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회는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농업인과 농업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함평군은 벼 모판 관주 처리 기술을 선보이고 농업인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모판 관주 처리는 이앙 1-2일 전 모판에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를 혼용해 육묘상자에 살포하는 신기술 농업이다.

함평군은 올해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355ha 규모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 처리 시범 사

업을 벌인다. 이 기술은 병해충 방제 횡수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기존 농법보다 약제 살포 시간을 95%가량 절감할 수 있다. 한 번 처리만으로도 벼멸구, 물바구미, 먹노린재, 흑명나방,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문종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모판 관주 처리 기술을 통한 생산비, 노동력 절감 등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로 이상기후 대응 풍년 농사를 도모하겠다"며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올해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355ha 규모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 처리 시범 사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경찰-농어촌공사 '안전 나주 만들기' 협약



장진영(오른쪽 다섯 번째) 나주경찰서장과 정인노(오른쪽 네 번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가 지난 20일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주경찰 제공>

나주경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장진영 나주경찰서장과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고령층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안전 캠페인 공동 전개', '안전 물품 지원 활동'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안전 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한 농어촌공사에 감사드린다"며 "공사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 철거비 지원해도 늘어나는 빈집...보유세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 장흥 725가구 경관·치안 문제 정부 나서 활용 방안 찾아야

농어촌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보유세'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흥지역 2만 1293가구 가운데 3.4% 비중을 해당하는 725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700호 넘는 빈집은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치안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빈집 대다수는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마련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무

허가 단독 가구'이다.

장흥군은 가구당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장흥군이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세운 예산은 1억4100만원(47개 동)으로, 지난해 정비 사업비 1억7800만원(60개 동)보다 20.8% 줄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장흥군이 빈집 정비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6억500만원으로, 모두 437개 빈집을 손봤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빈집을 내버려 두는 소유주에 대해 '철거이행 강제금'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빈집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은 725호의 빈집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181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건물과 부지는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조성되거나 귀촌·귀농인 주택 마련에 쓰인다.

이 같은 노력에도 빈집 소유주들은 객지에 살면서 부모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각을 꺼려 빈집 활용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일부 철거비 지원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 보유세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 kykim@

## 화순콜버스 7월19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행

###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부르면 오는' 화순콜버스가 오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행된다.

화순군은 지난 21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화순콜버스 운행 계획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중·장기 계획(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체계 개편에 따라 화순군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원하는 정류장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호출할 수 있다.

화순은 95개소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가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오후 7시 30분까지 호출할 수 있다. 차량은 15인승 이상 버스 3대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이용 때 성인 900원, 초·중·고생 100원이다. 현금으로 내면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이다.

화순군은 순환 버스 노선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노선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의 금액을 떠나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운송업체와 택시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